



[활동가 투잡스]

첫번째 모임: 활동가에게 투잡이란?

투잡을 갈망하는 활동가들이 모여서 활동가들에게 투잡이 가지는 의미, 하고싶은 투잡, 나의 재정상태 진단 등 투잡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다회를 가지기로 하다

일시: 2016년 11월 23일 금요일 19시 부터 21시 까지

장소: 마포구 상수역 인근 무대륙

•이어지는 자료들은 모임당일 발제 자료로 썼던 것들을 기본으로 당일 대화들과 모임개설자가 구두로 했던 부연 설명을 활자로 덧붙인 자료 이다

[조아라가 쏘아올린 작은 공]

사건의 발단은 조아라의 운전연수에서부터,

칭찬에 후한 나는 좋은 운전선생님인것 같다는 조아라의 칭찬에 그렇다면 나는 활동가의 삶을 살면서 밤에는 운전선생을 투잡으로 하겠노라고 뱉어버렸고 이후 쪽 잠재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만 속물인가?

조아라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소설집

마지막 시간에 교사가 물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다.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 내려왔고, 또 한 아이는 그늘음을 전혀 묻히지 않은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다. 재군은 어느 쪽의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한 학생이 대답했다.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교사가 말했다.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 한 아이는 더러운 얼굴을 하고 굴뚝에서 내려왔다.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얼굴의 아이를 보고 자기도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반대로 깨끗한 얼굴을 한 아이는 상대방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 자기도 더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학생들이 놀람의 소리를 냈다. "이번만 더 물겠다." 교사가 말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다.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 내려왔고, 또 한 아이는 그늘음을 전혀 묻히지 않은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다. 재군은 어느 쪽의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똑같은 질문이었다. 이번에는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대답했다. "더러운 아이를 씻을 것이다."

사실 활동의 지속가능성은 생계비와 직결 되어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활동이 노동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논외로 두더라도

활동가로서 활동을 업으로 선택한 사람은 적어도 이 일에서 최소한의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바란다. 그게 비록 내 주변의 친구들과 비교했을때 턱없이 적은 돈
일지라도 말이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부터 왜 거기서 그러고있니에 대한 세상의 잣대
로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말이다. 그게 돈이라면 더 할 나위 없이 깔끔할 테지만 아직까
지 우리사회의 인식은 시민단체가 돈을 이야기하는것을 터부 시 할뿐더러, 단체의 상근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성과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만큼 명확하지도 않다. 이러한 일이 반
복되다 보면 자연스레 활동의 짬이 찰때짬 소위 허리라고 하는 중간 년차의 활동가들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어느새 고질적인 단체들의 문제로 자리잡았다.

활동의 지속성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는 활동가 개인에게도 단체에게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함께 읽을 거리: '저임금중노동, 시민단체 허리가 사라진다'(오마이뉴스, 14,12,2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6011

‘저임금중노동, 시민단체 허리가 사라진다’를 풍자한 이미지(모임당일 설명도구로 썼다)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16.11.23)



135

서울 거주 1인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 그리고 이 숫자는 활동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매달 통장에 생계비 명목으로 찍히는 크기의 숫자다. 처음 내가 이숫자를 모인 사람들에게 들이밀며 이게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을때 모두가 한목소리로 자신있게 다들 대답했다. 우리 급여요 라고. .

서울연구원이 2015년 2월 17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복지실태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 거주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314만 원이다. 월평균 경상소득 366만 원의 85.6%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1인 가구 135만 원 △2인 가구 230만 원 △3인 가구 355만 원 △4인 가구 465만 원 등으로 가구원 1인이 증가할 때마다 평균 생활비가 102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1인가구 활동가야 어찌됐든 근근이 살아간다지만 혹시 가족이 늘어버리면,, 혹시 단체가 어려워져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135

자가 재정진단: - 0 +? ZERO SUM이라면 차라리 다행인가? 어디에 무슨 돈을 쓰시나요?

일반적으로 생활비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바로 '식료품비'(22.7%, 월 평균 71만 원)다. 그다음은 용돈·경조비(21.0%, 66만 원), 교통·통신비(12.1%, 38만 원), 세금·사회보장비(10.9%, 34만 원), 교육비(7.6%, 24만 원) 순이다. 식료품비는 가정식비, 외식비, 주류·담배비를 합한 것이며 주거비는 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가 해당된다. (서울연구원, 15,02,17)

나는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고 있을까? 내 전체 재정은 마이너스 일까? 0에 수렴할까? 그래도 + 일까? 1인가구의 활동가의 경우 주거 형태가 지출항목에 가장 중요하고 큰 비율을 차지한다. 부모님과 더부살이를 한다면 그나마 살만하다. 월세나 보증금으로부터 숨통이 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원대하지도 않은 꿈을 안고 서울살이 해보겠다고 부모님의 쓰신 밥을 고향에 두고 상경했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상황에서 보증금이 일단 내돈인지, 빚인지, 주거지가 IN 서울인지 아닌지, 서울안이 라면 역세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개인이 감당하는 주거비는 천차만별이다. 그나마 모임에 참여한 이민호씨의 경우 두꺼비하우징에서 하는 활동가 공동주택에 입주하게 되어 보증금 없이 적은 월세로 집값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지난달부터는 큰돈은 아니지만 적금도 넣는다고 한다. 이민호씨는 그냥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두겠다.

그와중에 오롯이 나를 위한 지출은 있을까? 얼마큼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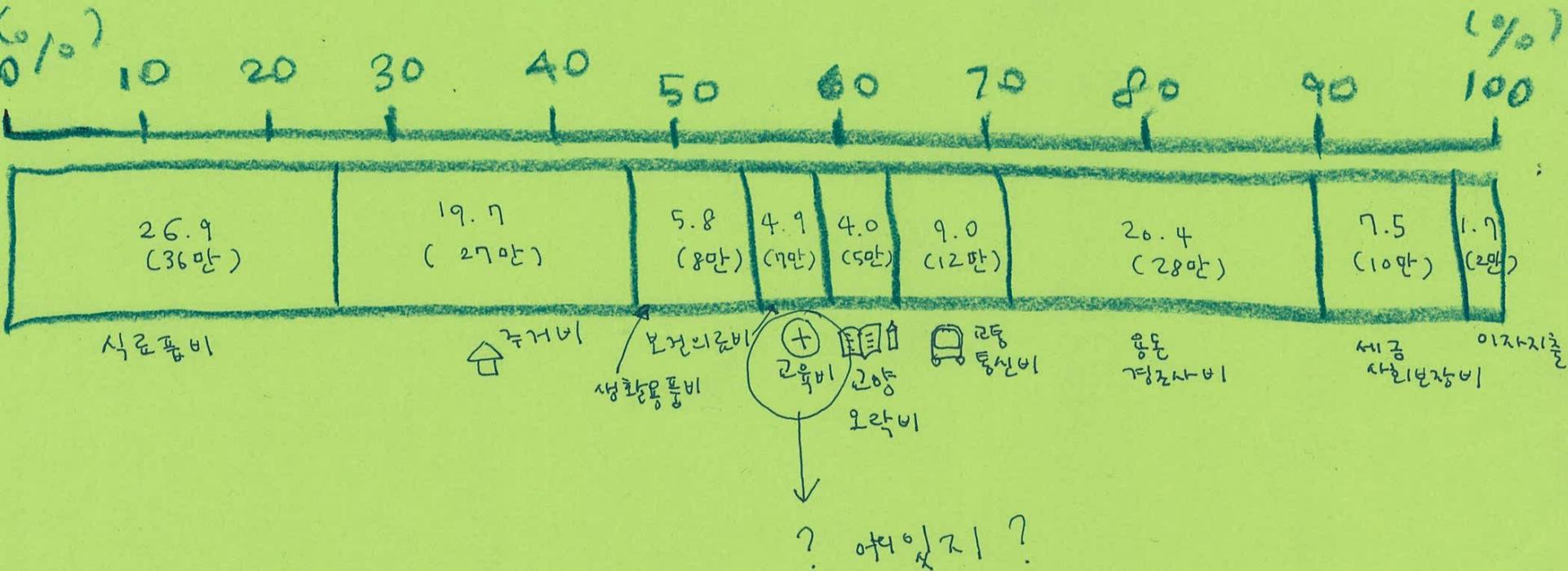
1인가구 항목별 지출에서 교양오락비 5만원, 경조사비 포함 용돈 28만원에서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큼일까? 요즘은 경조사에서 5만원짜리 미만으로는 내밀지도 못하던데,,, 135만원의 5만원,,,이렇게 보면 왜이렇게 큰돈일까? 나한테만 그럴까? 기쁜일은 기쁜마음으로 슬픈일은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같이 하고 싶지만 지폐로 보여지는 내마음의 크기는 옹졸해 보이기만 한다.

—

0

+

1인가구의 항목별 지출 비용 및 항목별 비율
 도표 참고: 서울연구원 연구자료 (15.02.17)



항목은 분명히 10개였는데
 교육비는 어디있지?
 건너가 없어서? 1인가구라서?

허리가 없는데도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나요?

그렇다면 투잡을 해야겠수!

투잡을 나무위키에서 찾아봤다. 다중직업종사자.

이 단어를 보면 늘 일에 치여서 피곤해하면서 남의 운전대를 잡는 일반적인 투잡의 이미지와는 다른 느낌이다.

나무위키를 찬찬히 살펴보니 투잡을하는 실존인물들 (대부분 연예인들 이지만) 다들 자기 하는 일들과 관련있는 것들을 한다 (13페이지 참고)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투잡은 대리, 중고나라 거래, 온라인 마켓 아니면 주말에 좌담회 알바. 결혼식장 알바. 뷔페 요리사 등등 특별한 회계 절차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순 알바가 많다.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연예인들 처럼 활동가가 할 수 있는 투잡은 아마도 토론회, (업무시간이면 더 꿀), 원고 작성, 카드뉴스 (오마이뉴스에 카드뉴스나 기사를 올리면 호응도에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받을 수 있다. 많은 기사를 올리고 잊어버리고 묵혀두면 꽤 돈이 된다고 카더라)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잘하는 일/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또는 다음직업을 위해 미리 연습하는 일

이왕이면 종일 활동하느라 피곤한데 저녁에 하는 일은 무언가 나의 다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참가자들과 나눠본다, 참고한 13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종룡씨는 그렇게 적게자고 바쁘게 일하면서 원하는 돈을 벌었지만 결국은 운명을 달리했다. 생계를 위해 하는 투잡은 맞지만 이왕이면 (아직 여유가 있다면) 즐겁게 할 수있는 일이었으면 한다

多重職業

從業者

구혜선 - 배우, 화가, 영화감독

김기현 - 성우, 배우, 코미디언[2]

김풍 - 웹툰 작가, 요리사[3]

솔비 - 가수, 화가

이세창 - 배우, 레이싱선수

이시영 - 배우, 권투선수

이종룡 - 떡공장 떡 배달, 학원 운전기사, 신문배달

등 7가지의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했다. 하루 수면 시

간은 1~2시간.

참가자와의 대화를 정리한 것을 첨부합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뺐)

밀크님:

1.5년차 활동가, 맞벌이 이다 보니 주는 안정감, 그렇지만 남편이 관두고 혼자 벌이를 해야한다면 부담이 있음, 교육비 지출, 식비 지출 가장 크다 (4인가족)
왜 투잡? 단체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일은 따로인 것 같다. 살아 있는 생명 특히 동물을 좋아한다. 단순노동이 적성에 잘 맞음

동물을 좋아하고 생물을 좋아하는 밀크님에게 투잡스가 추천해준 일은? 바로!!!

주인이 출장을 가거나 자리비울때 고양이 돌보는 일

이민호:

1년미만 활동가, 보증금이 없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하고 있음. 생활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노동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모임에 참여했음, 단체 내부 사람들이 결혼 할 수 있을가 고민하고 생계에 대한 고민을 하며 불행해 하는 것을 보는게 슬프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단순노동 선호, 집이너무 좋아요

단순노동을 좋아하는 집돌이 이민호님에게 투잡스가 추천해준 일은? 바로!!!

인형눈 붙이기, 단체들 정기간행물 발송 봉투 붙이기, 인터넷 오픈 마켓

임상욱:

회사원(유일하게 모임에 참여한 사람 중 활동가가 아니다), 활동가 친구를 보면서 느끼는게 많아서 이야기하러 왔음, 단체들을 보면,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들 보면 3가지 키워드에 대해 늘 생각하는데 빛(늘 쪼들린다)/ 노후(건강)/ 사람들이 왜 오래 있지 못할까? 단체들이 잘 된 사업을 펼쳐서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기획서 작성에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지금은 굳이 투잡이 필요치 않다

기획력이 갑이라는 임상욱님에게 투잡스가 추천해준 일은? 바로!!!

공모사업이 필연적인 단체들에게 기획서 대행

이용례:

5년차 활동가, 단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없다, 처음시작할 때 급여가 11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기본급이 오르다보니 어쩔수 없이 150만원이 되었다. 그런데 단체 상황이 나빠지면서 급여가 100%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생계에 쪼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쌓이는 것도 없다. 도대체 나에게 남는게 뭘까? 돈도 없고,,전문성이라도 남나? 개인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생산성이 있는 생계를 위한 활동은 따로 있고 사회기여와 뜻을 모을 수 있는 단체 활동이 투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글쓰는 일을 좋아하고 디자인을 배우고 싶은데 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글쓰는일을 좋아하고 디자인에 관심이많은 이용례님에게 투잡스가 추천해준 일은? 바로!!!

오마이뉴스 기자 ucc 업로드

동동:

1.5년차 단체 활동가, 서울에 온지 4년이 되었는데 모은돈이라고는 늘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집을 구하면서 넣었던 보증금이 전부다, 서울오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 돈을 모으기는 모으지만 여행을가거나 경조사비로 돈이 나간다. 오래 일한다고 돈이 모일 것 같지 않다. 디자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게 요즘 전문 업체에 맡기면 30만원이 넘는데 단체들 웹자보 현수막 제작 등 이걸 그냥 내가 직접 하고 5만원 받으면 단체나 나나 서로 윈윈 하는게 아닌가 해서 투잡에 관심이 있다.

디자인 스킬을 완비한 차세대 활동가 동동님에게 투잡스가 추천해준 일은? 바로!!!!

타 단체 웹자보 및 현수막 디자인, 활동가 일러스트 족집게 과외

휘파람:

1.4년차 단체 활동가, 조아라가 쏘아올린 그 공의 주인공, 지인들에게 운전연수를 시키는일을 투잡으로 갖는 꿈을 꾸고 있지만 자동차가 없는 비운의 활동가다. 버는 돈의 8할은 술값과 미식투어로 탕진한다. 미식을 좋아하나 입은 짹다. 전형적으로 돈 못모으는 케이스

맛따라 술따라 살다 술집 사장님으로 안착하고 싶은 휘파람님에게 투잡스가 추천해준 일은? 바로!!!!

소맥 푸드 트럭, 그리고 인자한 성품의 야매 도로주행 선생님

끝으로,

우리가 전체의 대표집단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것도 인연이라며 활동을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 만큼 서로 응원해 주자고 훈훈하게 이모임을 마무리하고 안볼 작정이었다. (이것은 이 시점부로 밝혀지는 개설자의 마음의 소리이다.)

그런데,,

오늘은 고민을 나눴으니 다음모임에서는 각자 **투잡을 해서 3만원을 벌어들여** 그 3만원을 손에 넣기 위한 각자의 투쟁기와 방법론을 나눠보기로 하자고 참가자들이 다음모임을 먼저 제안해 줬다. (제길, 너무 고맙군)

그리고 중간년차 활동가 이용례님은 이모임이 가지는 의미는 개인적이라면 개인적일 수 있지만 단체의 문제일수도 있는 이 **문제의식을 공론화**하는 것에 충분히 있다며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여주었다.

그리하여 활동가 투잡스는 다음모임을 하기로 하는데,,,,,

참여자들은 무사히 3만원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Menu board with Chinese text and a circular logo.

1 百財之財路幸 喜得財財路喜財
1 德 10 萬得

Document with Chinese text, partially visible at the bottom of the frame.